

말씀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8 1994

성도의 권

별책 부록: 어린이란





표지 설명:

4년 전, 이탈리아의 여러 스테이아가 합동으로 가졌던 청년 아영에 참여했던 130여 명의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인 이레네 고찌. 그 아영은 아영에 참여했던 이들의 생활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빛을 기억함", 34쪽 참조.
표지 사진 촬영: 돈 쏘프.

어린이란 표지 설명:

열 살 난 일리암 존스는 신화와 전설로 유명한 섬에 살고 있지만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맨 섬의 일리암 존스", 63쪽 참조.
사진 촬영: 리처드 엠 롬니.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2

"그 자매님이 오늘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올레 엠 스미스8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 리네트 에이치 켈리.....14

모든 사람이 참여함 브렌트 에이 바로우18

물에서 주운 소책자 가말리엘 알시데스 바스케스.....22

어린이들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시 테리 워너와 수잔 엘 워너.....26

씨뿌리는 날 넷자왈코요를 살리나스 브이32

나의 덩굴 장미40

청소년란

알 빈 마티네스 : 마천루처럼 하늘까지 마일즈 투아슨10

빛을 기억함 단 쏘프와 캐더린 쏘프34

온 마음을 다하여 셋 에이치 보일44

일어나서 방어하라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46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1

방문 교육 메시지 : 성전에 참석함 : 어려움과 축복25

어린이란(별책 부록)

몰론경 이야기 : 엘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권고함2

심심풀이5

이야기 : 초코바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6

함께 나누는 시간 : 성구 찾기 주디 에드워드.....10

어린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 : 애비의 날 미셸 브럼 올리버12

친구 사귀기 : 맨 섬의 일리암 존스 리처드 엠 롬니.....14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 월간 -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 격월간 -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 계간 -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사도 정원희 :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리드, 조셀 비 워스리,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편집인 : 렉스 디 피너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
관리 책임자 : 로널드 엘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 브라이언 케이 캘리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 앤 앤 가와사키
성도의 벗 :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데이비드 미켈
편집인 보조 / 어림이란 : 디앤 워커
스캐줄 관리 : 매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 스킵트 벤 켈렌
디자이너 : 세리 쿡

생산 관리 :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니퍼 테트와일러, 제인 앤 캠프, 테니즈 커비

구독 담당 스태프 :

발행 부수 책임자 : 토마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 : 조이스 헨스
마케팅 부장 : 켈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 제341호, 제31권, 제8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4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원
편집인 : 한상익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 1994년 제1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 10/92 번역 승인 - 10/92 August 1994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4988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중요한 인도자

저는 1965년 12월에 침례받은 후로 계속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잡지가 말일성도 가족들에게 중요한 영적 인도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읽습니다.

저는 이 잡지를 읽음으로써 제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잡지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즈환 구아르니리
브라질 상파울루

매우 아름다운 메시지

제가 처음으로 선교사와 만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첫 토론 때부터 저는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가 알지못했던 복음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가 교회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 회원들은 마치 저를 예전부터 잘 알던 사람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침례받았습니다. 지금은 자매 두 명도 침례를 받았으며, 아버지는 물론경을 읽고 계십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구독하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1993년 2월호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이 쓰신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란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대관장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다음과 같은 권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의미

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영을 마음 속에 지니며,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 잡지에는 많은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들이 실려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들의 간증에 관한 기사는 저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회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완다 리베라
푸에르토리코 마야게스 스테이크
이사벨라 지부

영적으로 강화시킴

레프와르(볼어 판)는 제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잡지입니다.

저는 특히 대관장단 메시지를 좋아하며, 전세계 말일성도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습니다.

이 잡지는 매일 저를 영적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저는 언제나 다음 호를 고대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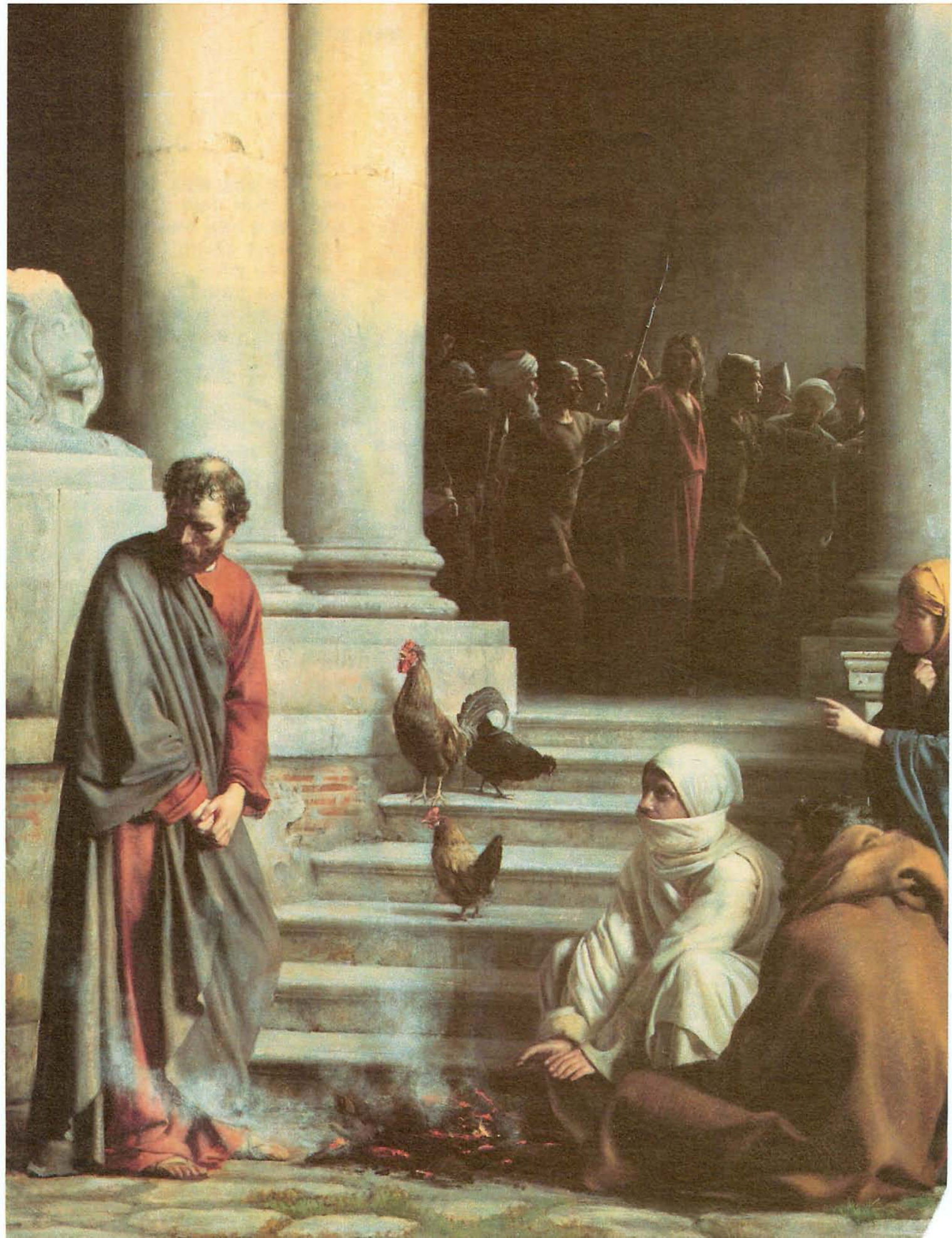
레오나르 헤오몬
타히티 파에아 스테이크
히티아 와드

편집 노트

애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 명칭을 꼭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편지를 참으로 기쁘게 받아 보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 ☎133-600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여러분을 예루살렘의 최후의 만찬이 끝난 뒤의 가장 두려운 저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성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된 시련이 앞에 다가왔음을 아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태복음 26:31, 33~35)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끔찍한 고뇌가 있는 직후에 배신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정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

베드로는 결코 구세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연약함에 압도되었으며, 고발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결심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더라”(마태복음 26 : 58)

조롱과 욕지거리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 때 한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태복음 26 : 69~75)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비애를 느낍니다. 베드로는 그의 충성과 결의와 결심을 확인하면서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연약함에 압도되었으며, 고발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결심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목표는 높은 데 있으나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비극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 속으로 베드로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대체로 너무나 그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고 큰 용기를 갖겠다

고 결심하고,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의를 행하고 의로운 대업을 위해 일어서며 우리 자신과 남에게 진실하겠다고 다짐하며 어떤 때는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압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 압력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욕망일 수도 있으며, 그러한 압력은 허망한 야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지가 약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결국 우리는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은 후회이며, 가책과 쓰라린 눈물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 또 다른 비극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는 높이 가졌으나 실제로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비극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고상합니다. 그들의 대망은 칭송할 만하며 능력 또한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강은 나약합니다. 그들은 태만하게 되며, 노력이 부족하여 의지마저 잃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회원은 아닙니다. 그는 명문 대학 출신이었고 그의 잠재력은 무한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 이 사람은 정상을 꿈꾸며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른 나이에 어느 회사에 들어간 그는 곧 승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머지 않아 그 회사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승진하게 되자 그는 교제를 위해 과음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것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알콜 중독자가 되었으며,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했습니다만, 너무나 거만하여 그를 도우려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 드디어 그의 비극적인 최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별과 같이 되어 비극적으로 불타오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높은 목표와 놀라운 재능



베드로는 앉은뱅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사도행전 3:6, 8)

을 가지고 승승 장구했던 그가 어느 대도시의 빈민가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래의 가능성을 실현시켜 줄 힘과 능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실패의 먹구름이 밀려왔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 것입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전 제가 영국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되고 나서 주님께 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하였으며,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습관을 극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

다. 그가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표준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타오르는 담배 연기 냄새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몇 년 후에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지난 날의 추억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저는 캐시어스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브루터스, 잘못된 우리의 운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줄기에 지나지 않아.

(윌리엄 셰익스피어, 「줄리어스 시저」, 1막 2장, 140~141행)

그래서 저는 고귀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내리막길을 걷는 자, 즉 시작한 훌륭했으나 갈수록 악화 일로를 치닫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시합에서 1루나 2루나 3루까지 순조롭게 진출했지만 득점은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며, 관대한 전성을 부인하고, 소유욕에 휘말리며, 자기 중심적이며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재능이나 신앙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에 애통하며 울부짖기를 추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도다 하리라.”(교리와 성약 56:16)

저는 또한 주님과 주님의 사업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나, 나중에는 말로 또는 침묵으로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버린 데서 오는 비극

저는 큰 신앙심을 지니고 많은 헌신을 한 어떤 젊은이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저의 친구였으며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에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태도와 봉사하는 열의를 보면

그가 주님과 교회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그를 자기들의 발전의 수단으로 삼아 아첨하는 것에 빠져 서서히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신앙과 행동으로 인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의 유혹에 서서히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의 생활의 바탕이 되어 온 신앙을 부인하는 말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뒤바뀐 생활 태도는 그가 신앙을 버렸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저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와 힘없는 눈초리로 그는 자신이 한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신앙의 닳을 스스로 끊고 표류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난 그는 베드로처럼 울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 친구와 함께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직종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그의 활동은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묻자, 제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고 그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가 현재 속해 있는 사회 조직에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 오래지 않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의 장자 상속권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았음을 인식하는 때가 올 것이다.’(창세기 25:29~34 참조) 또한 회오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 이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의지할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자란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마가복음 8:38)

베드로가 회개하고 더욱 충실해짐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증거하였습니다. 선임 사도인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감동적인 설교를 했을 때 우리들은 성신의 권세로 마음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에서 받은 신권의 권능으로 그는 요한과 함께 앓은뱅이를 고쳤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을 때 그는 담대하게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현을 보았습니다.(사도행전 2~4장, 10장 참조)

그는 자신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마태복음 4:19 참조)로 부르신 주님을 증거한 죄로 죄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다가 비참하게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께서 마지막으로 열한 명의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마태복음 28:19)라고 하셨을 때 갖게 된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지상에 돌아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성신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거룩한 권능을 통해 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지금도 그 권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일과 기타 언급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한때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으나 후에 그런 잘못을 딛고 일어난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는 승천한 후에도 구세주를 위한 사업을 열심히 행했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는 그 사업의 회복에 참여했습니다.



베드로는 앉은뱅이를 고친 일로 고발당했으나, 공회 앞에서 형제들을 담대하게 변호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12)

진리로 돌아서겠다고 결심함

이제 전세계의 교회 회원 중에서 행동이나 말로 신앙을 부인한 분들이 계시다면 베드로의 예에서 위로를 얻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과 매일 동행했으나 곤경의 시간에는 주님과 자신이 간직했던 간증까지 잠시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던고 일어섰으며 마침내 신앙의 위대한 수호자요 강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자란 훌륭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자, 야망에 불타 올라 신앙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거의 부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

지만 다행히도 그는 더 타락하기 전에 고요하고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켰으며 시온의 위대한 스테이크장이 되었습니다.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 또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해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도 있을 것이며, 비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의 권세로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어 소망을 키워 주시고 결심을 굳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알고 있는 진리로 마음을 돌이켜 충만한 기쁨과 감미로운 행복과 만족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베드로는 처음에 충성을 다짐했으나, 압력을 받게 되자 결심이 허물어졌다.
2.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그가 일단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는 회개하고 주님의 훌륭한 종이 되었다는 것이다.
3.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충성을 맹세하고 진리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지만, 다음에 압력이 생기면 의지가 약해져 후욕에 넘어가게 되며, 후에는 회오의 눈물을 흘린다.
4. 회개할 때 베드로의 모범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추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 받지 못하였도다."(교리와 성약 56:16)하며 슬퍼할 것이다.
5. 누구든지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그 자매님이 오늘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올레 엠 스미스

몇년 전에 우리가 푸에르토리코에 살 때 나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는 나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귀환 선교사였다. 우리는 둘 다 복음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 받은 대로 단지 단순한 신앙을 행사했던 여덟 살 소년으로부터 아주 귀중한 복음의 교훈을 배웠다.

빌과 나는 램버트 자매의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받았다. 그녀는 푸에르토리코의 초창기 회원 중 한 명으로서 연로한 자매였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종묘를 판매하는 자신의 조그만 사업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를 집에서 만나는 일 역시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빌과 나는 용케도 그녀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우리는 매달 공과를 특별하게 준비해서 그녀를 찾아갔으며 그녀가 다시 교회에서 활동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복음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나는 램버트 자매가 일찍 귀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빌과 함께 곧바로 그녀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빌은 고등 평의원으로서 맡은 일 때문에 멀리 가 있었다.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 가지로 궁리해보았다. 결국 최근에 침례받은 우리 아들 트렌트를 동반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에게 “트렌트, 어서 벡타이를 매라. 너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갈거니까.”라고 지시했다.

트렌트는 놀랐지만 자랑스럽게 벡타이를 꺼내서 댔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집을 떠났다.

램버트 자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트렌트에게 공과를 맡겨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트렌트와 함께 공과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었다. 우리가 램버트 자매의 집에 도착했을 때 트렌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램버트 자매가 어린 트렌트에게 인사를 하면서 보여 준 미소를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우리가 잠시 잡담을 나눈 후에 트렌트는 훌륭한 공과를 전했다. 우리는 좋은 느낌을 갖고 돌아왔다.

몇 주가 지난 금식 주일 전날 저녁에 나는 트렌트에게 최근에 금식 주일에 목표를 갖고 금식하려고 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금식이 가져다 준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또 금식에는 목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나는 트렌트에게 “만일 그것이 의로운 소망이라면 주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거야.”라고 말했다.

트렌트는 “알아요, 아빠. 전 이미 무엇을 위해 금식 할지 목표를 세웠어요.”라고 말했다.

다음날 오후, 예배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내 눈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 램버트 자매가 나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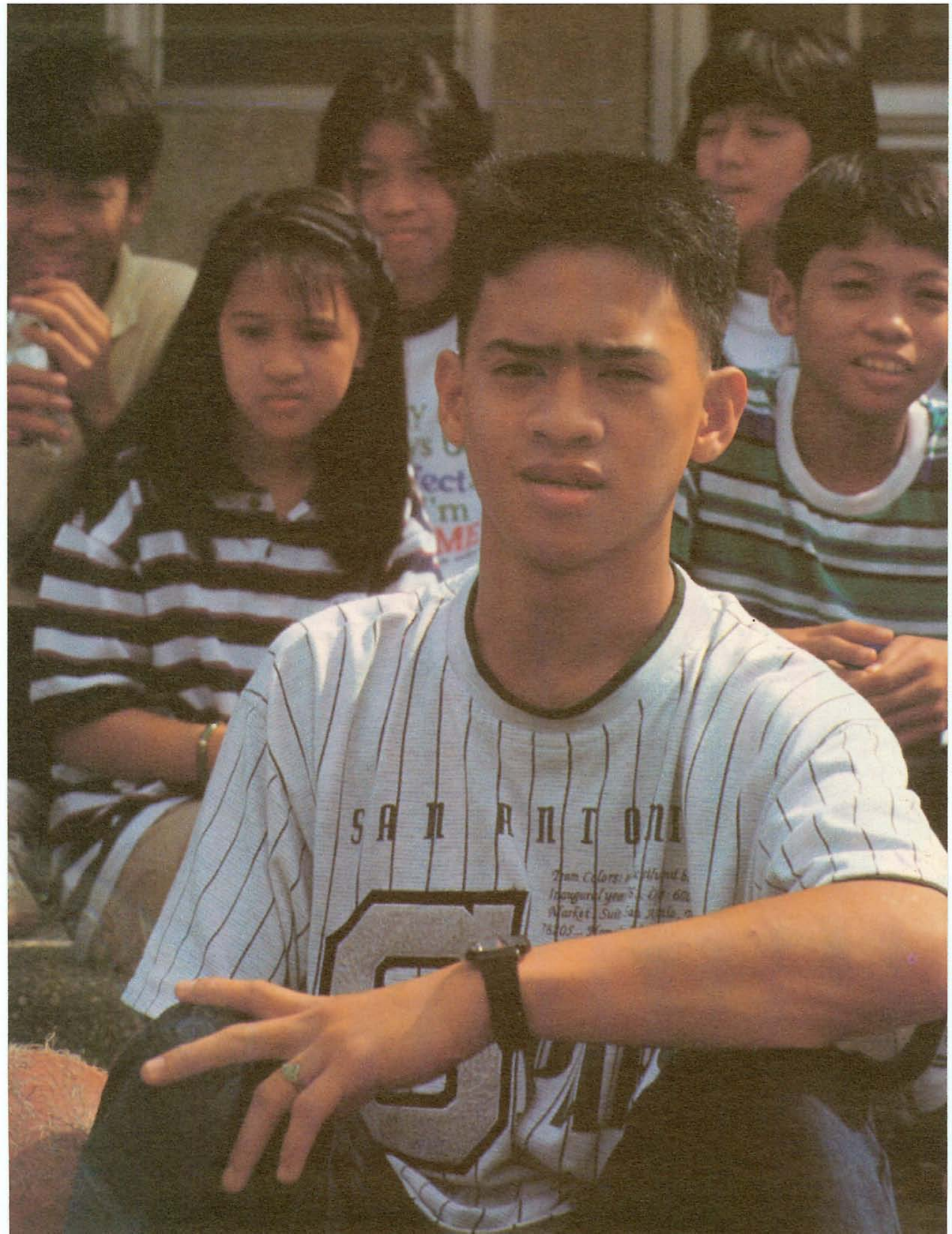
나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마침내 빌과 내가 그녀를 이해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의 관심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트렌트로 하여금 가정 복음 교육의 보람을 맛보게 하려고 그 애 쪽으로 몸을 구부려서 “오늘 램버트 자매가 나왔다니 놀랍지 않니? 네가 한 일이 도움이 되었어.”라고 속삭였다.

트렌트의 대답은 내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다. 트렌트는 “너무너무 기뻐요, 아빠. 하지만 놀라진 않았어요. 저는 램버트 자매님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금식했거든요. 그 자매님이 오늘 나오실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금식에 대한 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램버트 자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던 기회에 대해 감사드렸다. □





알빈 마티네스 : 마천루처럼 하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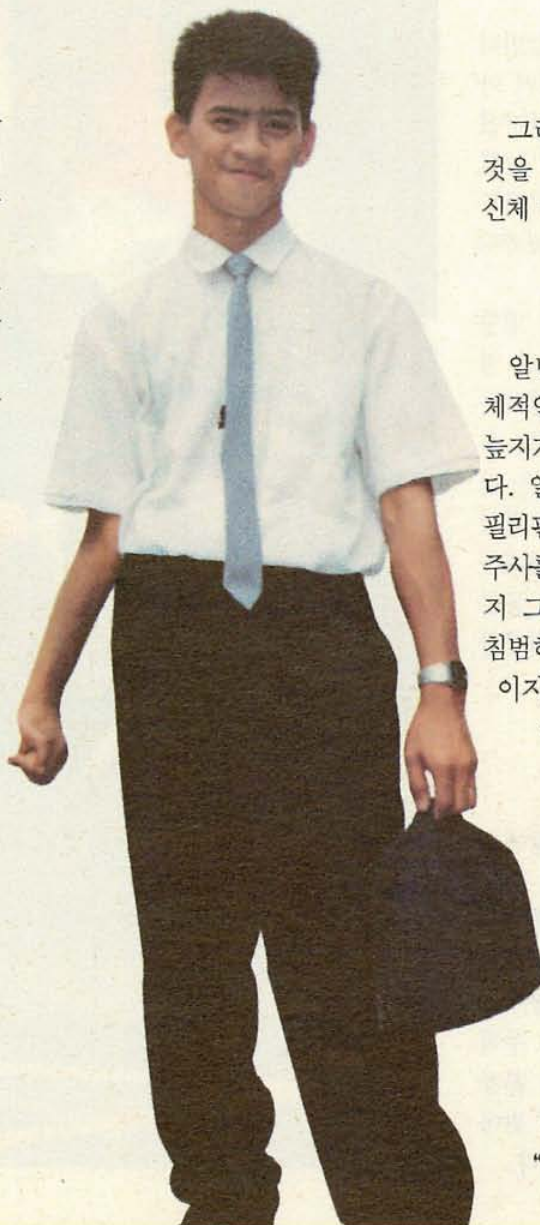
마일즈 투어슨

마닐라의 부엔디아 아베뉴에 있는 그 수수한 집회소는 근처의 화려한 건물들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때는 쓸모없는 늪 지대로 여겨졌던 곳에 세워져서 필리핀 마카티 스테이크 센터로 함께 사용되는 그 건물은 마닐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그 곳의 농구 코트에서는 스테이크 청소년 스포츠 대회 같이 평범한 활동이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예로서 만달링 제3와드 농구팀을 지켜 본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갑자기 딱딱한 농구 코트에서 몸을 비틀거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움직이는 한 청소년에게 쏠릴 것이다.

무릎을 다친 게 아닐까?
손목을 뺨 걸까?

알빈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수줍음도 극복하고 즐겁게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 그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부분적으로 신체 기능이 마비되어 있을 뿐이다.

높지에서 마천루까지

알빈 마티네스에게 있어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높지가 마천루로 바뀌는 것과 똑같다. 알빈은 건강하게 태어나 다른 필리핀 신생아들처럼 소아마비 예방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백신이 알빈의 신경 중추를 침범하여 오른쪽 다리와 팔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소아마비 백신이 그의 몸 오른쪽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다.

학교에서 알빈이 절뚝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반 아이들은 종종 그를 놀리곤 했다.

어떤 아이는 “야, 알빈이 다.” 라고 외쳤다.

또 어떤 아이는 “그 길은 똑 바르잖아. 그런데 왜 비뚤비뚤 걷는 거지?”라고 놀리곤 했다. “알빈, 필레이 알빈!” 필레이란

알빈은 농구를 하는 것이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든, 또는 세미나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든 간에 그의 와드에서 가장 활동적인 청년 중 하나이다.

절름발이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반 아이들이 그를 놀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놀림만이 알빈의 유일한 시련은 아니었다. 알빈의 아버지는 말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사망과 친구들의 놀림으로 괴로워하던 알빈은 학교에도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다른 바카다 즉 동년배들을 찾았다.

마닐라에서 바카다는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 모두를 포함하는 뜻으로 쓰인다. 알빈의 바카다는 후자의 부류였다. 그렇지만 알빈은 말일성도의 표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친구들이 저더러 담배를 피우도록 권했지만 저는 제가 물론이라고 말해 주었어요.”라고 회상한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

마침내 알빈은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일어나 고대의 다윗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골리앗을 정복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공부를 계속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현재 재봉사로 일하고 있는 알빈의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녀는 알빈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는다면 장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꾸준히 일러 왔었다.



알빈은 학교에서 그를 존중해 주는 급우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바카더*를 찾았다. 그는 “급우들 모두가 아주 친절하고 상냥했어요.”라고 말하며 밝게 미소짓는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사실은 장난을 좋아하고 익살맞은 알빈은 또한 집에서 떨어져 있을 때면 교회가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알빈은 “교회에 있는 것이 즐거웠고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어요.”라고 말한다. 훌륭한 교회 친구들과 신권 정원회 회원들의 영향 덕분에 알빈의 간증은 강화되었으며 청소년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그는 자신을 발견하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들은 알빈을 방문할 때마다 종종 그에게 신체적인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 주곤 했다. 한 청소년 지도자는 “우리는 알빈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를 원했어요. 마침내 알빈은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라고 회상한다. 알빈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선교사들에게 감사하지만 자신이 심한 고통을 겪은 후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와준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감사한다.

알빈은 항상 나올 거예요

지금 알빈은 그의 와드에서 가장 활동적인 청남 중 하나이다. 그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알빈은 “그 애들은 저와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 몸에 대해 농담조차 하지 않는 걸요.”라고 말하며 행복해 한다. 오히려 알빈이 그들을 놀리는 쪽이다.

교회를 위한 알빈의 헌신은 모범적이다. 어느 일요일에 그는 다른 청남들과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번 토요일에 교회 마당을 청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라고 말했다.

다른 청남 하나가 “하지만 우린 그것보다 더 좋은 활동이 있잖아.”라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처음에 부탁받은 것을 하자.”라고 알빈이 말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자 다른 청남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알빈은 작업복을 입고 이미 나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회원인 사촌까지 데리고 나왔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빈이 가장 좋아하는 다음 성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최근에 알빈은 세미나리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이유로 특별한 상을 받았다. 마닐라의 말일성도 청소년 세미나리는 보통으로 마닐라의 혼잡한 교통 체증이 극도에 달한 시간인 오후나 이른 저녁에 시작된다. 그러나 알빈은 항상 제시간에 온다. 알빈의 세미나리 교사인 놀란 카세레스 형제는 “공과에서 배운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 할 때 알빈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라고 말한다.

알빈의 그러한 태도는 다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가 참여하는 와드 농구팀은 스테이크 스포츠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다. 카세레스 형제는 교회에서 열리는 활동의 밤에 대해서도 “알빈은 우리를 실망

시키지 않아요. 알빈은 항상 나올 거예요.”라고 말한다.

원대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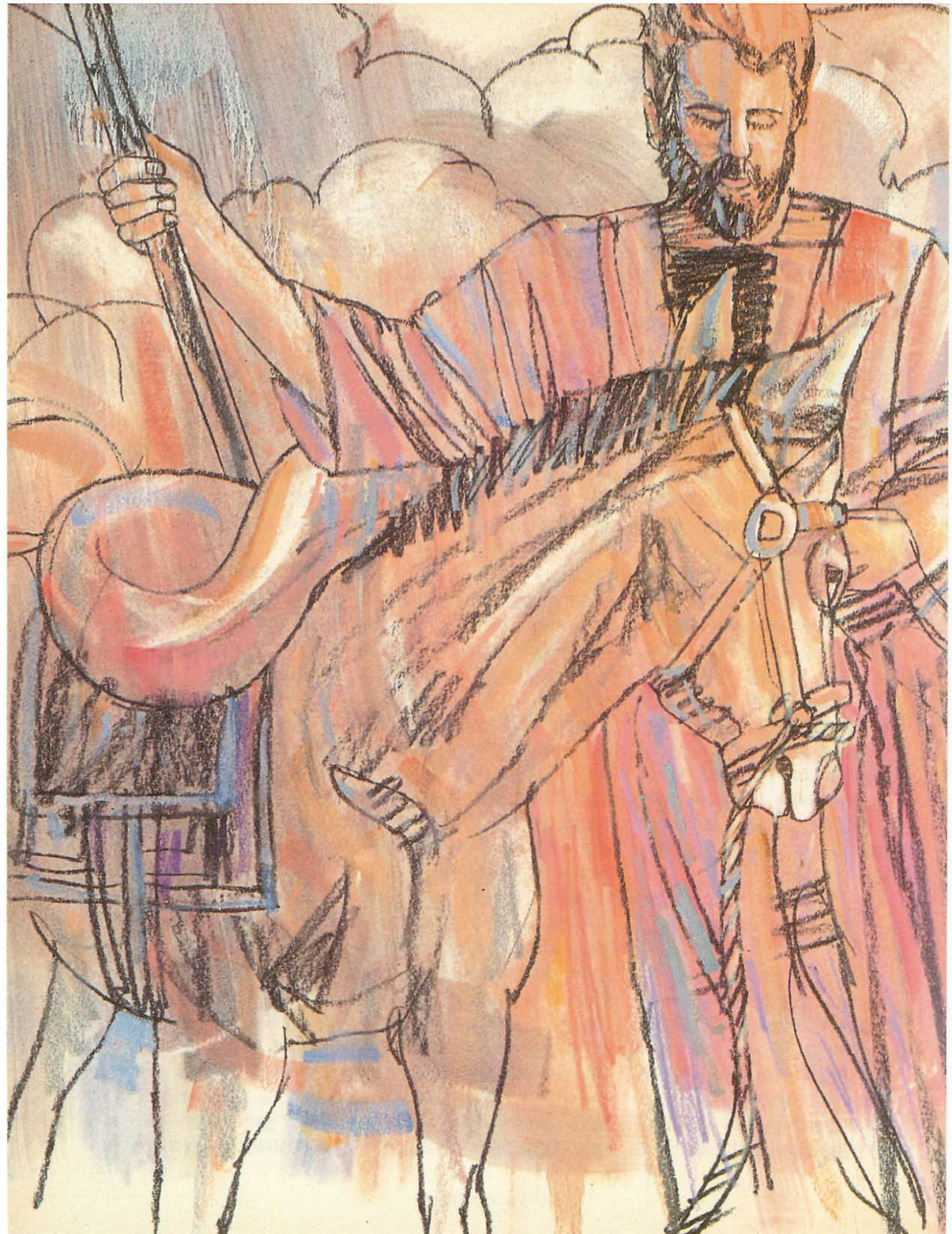
.....

알빈의 꿈도 스테이크 센터 위로 치솟아 있는 고층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높다. 그는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최고의 목표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알빈은 이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즉 단순하지만 헌신적인 모범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 왔다.

가장 좋아하는 경전상의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알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모세예요.”라고 대답한다. 그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모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들이기 전에 “입이 뻗뻗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출애굽기 4:10 참조) 그러나 개인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행했다. 알빈은 모세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고 있다.

많은 필리핀 장애자들이 공공 시설에 수용되며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는다. 알빈은 예외이다. “알빈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익한 일을 배워서 해 왔어요.”라고 카세레스 형제는 덧붙여 말한다.

그렇다. 농구와 공부와 선교 사업 같은 것들은 유익한 일들이다. 알빈 마티네스는 사람이 마닐라의 마천루들처럼 높이 솟아올라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

리네트 에이치 켈리
그림: 레리 윌버그

구약에는 주님의 말일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많은 영감받은 가르침이 들어 있다. 오늘날의 생활이 구약 시대의 생활과 많은 면에서 다르겠지만 영원한 진리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언제나 똑같다. 구약은 늘 내 생활에 지침이 되어 왔다. 나는 구약의 많은 보물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이라고 부른다.

유년기에 얻은 선물: 발람의 당나귀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 사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다. 주님은 그를 멈추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 발람의 당나귀는 길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보았지만 발람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 동물은 세 번이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발람은 당나

귀를 때렸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주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그는 천사를 보았으며 천사는 발람에게 당나귀가 그의 생명을 구했음을 말해 주었다.(민수기 22:5~35)

어린 시절, 지어낸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이 이야기와 그와 같은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은 나를 감동시켰다. 말하는 당나귀를 한 번 상상해 보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 앉아 평화롭게 경전을 읽을 여유를 가졌던, 엄마로서는 드문 기회였던 어느 아침을 기억한다. 얼마 후 어린 아들이 잠옷 바람으로 비틀거리며 침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 애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내 무릎 위로 기

어울라와 “엄마, 뭐 읽고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럴 때면 나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다. 처음에는 노아의 방주(창세기 6~8장 참조)나 요셉의 채색옷(창세기 37:3~36 참조)이나 서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칼로 아기를 거의 벨 뻔했던 솔로몬 왕(열왕기상 3:16~28 참조)과 같이 잘 알려진 얘기를 해주었다.

다음에는 다윗 왕을 섬긴 세 명의 용사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목마른 왕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여 마실 물을 가져 왔다.(역대상 11:10~19 참조)

구약에는 어린이들이 음미해 볼 수 있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청년기에 얻은 선물 : 아사 왕의 건강에 대한 교훈

나는 대학 시절에 건강상의 문제로 계속 고통을 겪었다. 새로운 약물 처방을 시도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병의 증상을 더욱 혼란시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아사에 대해 읽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 구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는 지 사십일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역대하 16:12~13)

나도 아사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의원들에게 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성구를 읽을 때 영은 나에게 치유해 줄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의학적인 모든 처치를 행하는 가운데 나는 기도하였으며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선교사 시절에 얻은 선물 :

경주와 전투

.....

문: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에레미야 12:5)

답: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역대하 20:15)

문전 박대를 한 번이라도 더 받는다면 전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선교사 시절이 그런 날들이었다. 후임 동반자의 지친 눈길을 보고 그녀도 나와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넓은 들판으로 나갔다. 나는 높은 방독에 올라가서 잠자코 들을 수밖에 없는 흙더미와, 바람에 가볍게 흔들거리는 키 큰 줄기의 노랗게 익은 곡식을 상대로 소리높여 이야기했다.

들판을 향해 나는 교리와 성약 4편에서 말하고 있는 수확물, 곧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했다. 주님을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우리는 힘을 다해 낫질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를 간신히 따라잡고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말처럼 빨리 우리를 제치고 달려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역대에 나온 그 성구는 우리에게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위안이 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때가 임박하였으며 그 전쟁과 인생의 경주에서의 승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모로서 얻은 선물 :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결혼 초기에 나는 남편과 친구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와 활동으로 저녁 시간을 바쁘게 보낸 후 밤늦게 잠자리로 들어갔다. 남편과 나는 거의 잠들기 직전에 그날의 경전 읽기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불을 켜고 옷가방을 뒤져 경전을 찾는 대신 서로가 교대로 좋아하는 성구를 조용히 말해 보기로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신명기 5:29)라는 성구를 인용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남편의 고요한 어조를 통해 그가 그 성구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즉 우리가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되기를 얼마나 열망하

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성구는 우리 집의 거실 벽에 걸려 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을 영원히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여인들에게 주는 선물 :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나는 잠언에서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여인에 대해 묘사하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려고 노력한다. 잠언에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 현숙한 여인의 훌륭한 행위와 특성을 격찬하는 구절이 스물두 개나 있다.(잠언 31:10~31 참조) 이것을 잠언 21장 19절의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는 성구와 비교해 보라.

구약은 충실하고 의로운 여인들의 모범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고대 이스라엘의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을 존경한다.(출애굽기 35:25 참조) 나는 뱃속에 있는 쌍둥이로부터 두 민족이 나올거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은 리브가를 존경한다.(창세기 25:21~23 참조) 또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온 라헬의 질 년간의 구애를 애석해 하며(창세기 29:18~28 참조) 율법에 대한 사라의 순종심에 감탄하고(교리와 성약 132:34 참조) 아들을 원했던 한나와 함께 슬퍼했다.(사무엘상 1:4~16 참조) 그리고 드보라의 지도력과(사사기 4~5장 참조) 천사와 이야기를 나눈 삼손의 어머니의 신앙(사사기 13장 참조)에 놀랐다. 나는 이브의 비이기심(모세서 5:11 참조)과 에스더의 용기(에스더 4~5장 참조)와 룯의 헌신(룯기 1장 참조)을 배우고 따르기를 기도한다. 또한 나는 “충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사무엘상 25:3)답다고 묘사되었던 아버가일처럼 살기를 원한다.

구약은 내 인생 전반에 걸쳐 필요한 시기마다 말하는 당나귀, 아사의 발, 경주와 전투, 순종하는 마음 및 본보기가 되는 여인과 같은 적절한 선물들을 베풀어 주었다. 우리는 그토록 기적적으로 보존된 하나님의 선물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그것은 “보내는 이 : 고대 이스라엘, 받는 이 : 현대의 이스라엘. 주의 깊게 따를 것”이라는 꼬리표까지 잘 전달해 줄 것이다. □

모든 사람이

브렌트 에이 바로우
사진 촬영: 스티브 번다슨

활기있고 유익한
토론으로 공과의 가치를
높임

주님은 교실에서의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말씀해 주셨다. “너희 중에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지 않게 하라. 한번에 한 사람씩 말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말하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교화를 받아 사람들이 저마다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122)

반 토론은 효과적인 교수법이다. 그것은 어떤 공과에라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발견 학습 과정, 즉 스스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학습 과정에 반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질문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심으로써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께서 “죄인”인 한 여자가 그의 몸을 만지고 발을 눈물로 씻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두 채무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누가복음 7:36~50 참조)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어떤 사람에게 빚졌다.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채권자는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 시몬에게

여러분은 와드에서 복음 교리반을 가르치도록 부름 받았다.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서 주제를 찾아보고 공과를 검토한다. 일요일에는 자신을 갖고 공과를 시작한다. 그러나 교재에 나온 주제에 대해 말하고 성구를 읽는 가운데 30분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품을 참고 있거나 멍하니 앞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참여함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42절)라고 물으셨다.

반원들의 참여는 교회 교육에서 더욱더 강조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 복음 교리반 교사 보조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이 나와 있다. “교사로서 여러분은 반원에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함께 참여하도록 돕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한 뒤, 반원들은 서로 가르치고 지혜와 덕성을 함양시켜야 한다. (교리와 성약 88:118, 122 참조) 반원이 참여하는 것은 공과반에 영이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반원들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vii쪽)

여러분은 다음의 제언을 이용하여 모든 반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반 토론 기술

.....

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어떤 정보를 전해 주고 싶은가? 반원들로부터 어떤 개념을 유도해 내고 싶은가? 어떤 특별한 개념을 가르치고 싶은가? 사전에 이러한 항목들을 종이에 열거해 보는 것은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반원들에게서 그런 결과를 얻는 데 공과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줄 것이다.

반원을 토론에 참여시키는 데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데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1.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전을 정규적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와 같은 것 등이다.

일반적인 질문은 누가 답을 말하도록 지명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반원들로 하여금 그 답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질문을 한 후, 답을 말하고 싶은 뜻을 나타내는 반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질문을 한 후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어느 한 반원으로 하여금 답을 말하게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성구는 어떤 것입니까?"(잠시 쉬었다가) "별, 어떤 성구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하기 전에 대답할 사람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미리 표시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반원들은 대답할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3. 어느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반원을 화나게 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존슨 형제님, 가정의 밤에 참



여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하는 열일곱 살의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별적인 질문에 답하기를 주저할 지도 모르는 반원을 참여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 “젠슨 자매님, 경전을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반원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면 여러분은 그 반원에게 덧붙여 말할 것이 있는지 물어 볼 수 있다. 만약 없다면 그대로 공과를 진행한다.

4. 반을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토론할 질문이나 주제를 준다. 각 그룹을 대표할 남자와 여자를 정하도록 한다. 반원들에게 질문이나 주제를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또 그것들이 공과 내용과 연관되도록 한다. 각 그룹마다 토론한 결과를 보고할 사람을 한 명씩 지명하게 한다. 예: “가정의 밤을 더욱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토론하세요.”

소그룹 토론은 공과 시간이 충분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토론이 끝난 후, 각 그룹의 보고를 들을 시간을 충분히 남겨 두도록 한다. 각 그룹의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 줄 결론적인 견해나 인용문 또는 성구로 공과를 마친다.

주의

교사는 강의식 교수법에서 토론식

교수법으로 전환할 때 반원 관리 및 공과 진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이거나 더 높은 참여 욕구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진해서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토론 중에 학생들이 말한 어떤 의견들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는 복음 원리나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공과 시간은 때때로 그 잘못을 바로잡거나 심지어는 공과와 거의 관련이 없는 주제를 토론하는 것으로 지나가 버린다.

또 때로는 교사나 반원 혹은 양쪽 모두 토론해야 할 내용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들은 이내 원래의 질문과 거의 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을 토론하게 된다. 토론이 너무 많거나 소수의 반원들이 토론을 주도할 때 어떤 반원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토론할 개념을 분명히 해서 반원들이 그것만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점

반 토론의 주요한 이점은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사와 반원 모두를 학습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전 공과 시간 동안, 반원들의 학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만큼 숙련된 교사는 거의 없다. 이것은 특히 한 시간 또는 그 이상 진행되는 공과에 대해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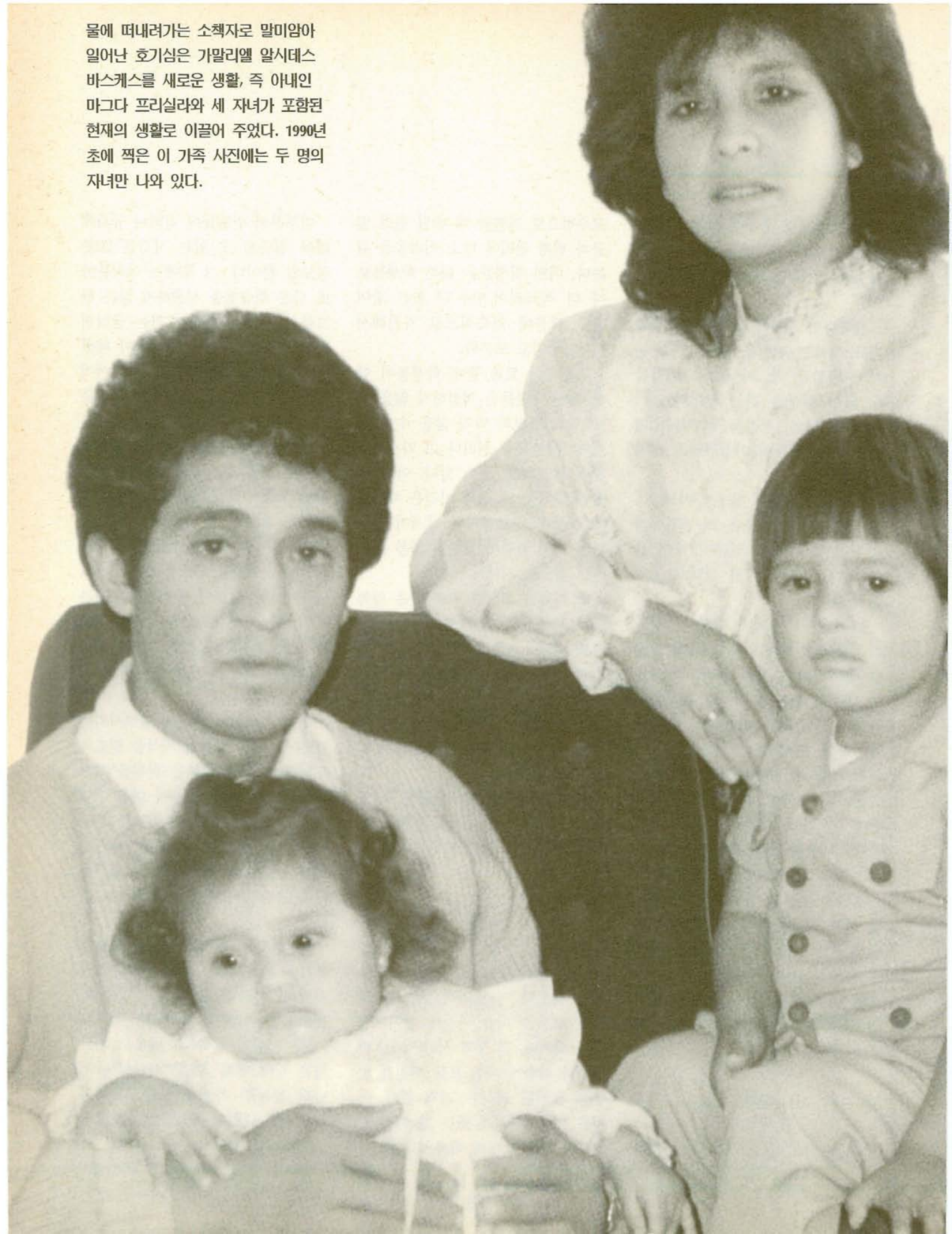
대부분의 반원들이 강의나 공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일 뿐이다. 그 후에는 여러분이 또 다른 학습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들의 흥미와 학습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다. 반 토론은 학생들이 배웠던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도록 해줌으로써 그들의 흥미를 지속시킨다.

때때로 반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발표하는 중에 교사의 질문이나 교재에 나온 질문보다 더 통찰력있는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질문은 반원들이 더욱 심도있는 토론을 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가르치라”(교리와 성약 88:118)라는 경전의 훈계에 따르는 것이다.

더욱이 반원을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을 얻도록 도와준다. 즉 여러분은 반원들 개인과 그들의 흥미와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들에 관해 더 잘 알 수 있다. 반원들의 진정한 필요 사항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사는 더욱 훌륭하게 부름을 수행하는 것이다.

잘 계획된 질문과 적절한 토론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제언에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저마다 동등한 특권을 누리”(교리와 성약 88:122)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물에 떠내려가는 소책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호기심은 가말리엘 알시데스
바스케스를 새로운 생활, 즉 아내인
마그다 프리실라와 세 자녀가 포함된
현재의 생활로 이끌어 주었다. 1990년
초에 찍은 이 가족 사진에는 두 명의
자녀만 나와 있다.



물에서 주운 소책자

가말리엘 알시데스 바스케스

1977년 9월, 당시 열아홉살이었던 나는 과테말라의 케찰테낭고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숙소로 돌아가다가 빗물이 우리 아파트 쪽 길로 실도랑을 이루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 도랑 속에는 종이 한 장이 떠내려 가고 있었다. 나는 그냥 재미로 그 종이가 떠내려가는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걸어갔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것을 물에서 집어 들었다.

그것은 소책자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직하신 교회라는 제목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한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교회를 찾는 일에 무척 관심을 가졌었다. 많은 교회를 알아보았지만 그 중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나는 그 일을 포기하였었다. 그러나 그 소책자의 제목을 본 그때 나는 어쩐지 참된 교회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것의 뒷면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 교회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10월에 학기가 끝나서 나는 3개월 간의 방학 동안 고향인 리오 블랑코로 돌아갔다. 그 곳에 있는 동안 옥수수 거두는 일을 거들었다.

어느날 내가 낡은 트럭을 몰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갑자기 트럭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나는 도랑으로 내동댕이쳐져 차에 머리를 치일 뻔했다. 나는 무척 충격을 받았으며 만일 내가 죽었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졌다. 학교가 1월에 개학하기 때문에 나는 케찰테낭고로 돌아왔다. 케찰테낭고 시에서 삼 년 동안이나 살았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말일성도 교회를 본 적이 없었다. 어느 일요일, 나는 그 교회가 케찰테낭고에 있다면 그 곳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교회가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 보았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위치를 잘못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마침내 세 시간 후에 나는 그 집회소의 위치를 알아내고서는 문자 그대로 그 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 건물은 훌륭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수줍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배실 뒷 자리에 조용히 들어가 앉았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말을 걸어주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모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 속에서

나는 침례받았을 때 리오 블랑코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으므로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교회가 정말 참되다면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일이 끝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와 친척들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내 여덟 사람이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

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껴 보지 못했던 감정이 일어났다.

나는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일요일에도 그 교회로 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세 명의 회원이 단지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뿐이었다. 나는 굉장히 다른 교회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좋았다. 유감스럽게도 회원들은 그때까지 내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으며 나는 한 주만 더 나오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도 말을 걸어 오지 않는다면 계속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아름다운 추억은 간직하게 될 것이었다.

세 번째 일요일의 모임도 여느 때와 똑같이 즐거웠다. 모임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통로쪽 좌석에 앉아 있던 나는 다시 못을 거라는 생각에 거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때 금발에다 말쑥하게 옷을 차려 입은 한 젊은이가 내 옆에 앉았다. 그는 서투른 스페인어로 언제 내가 교회 회원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회원이 아니라 그냥 방문자예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즉시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는 내 주소를 물었다.

"내 주소가 왜 필요하죠?"

그는 "형제님을 알고 싶고 또 형제님에게 교회에 관해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죠."라고

설명했다.

나는 기쁘게 그의 초청을 받아들였으며 그 선교사들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묻는 많은 질문에 대해 늘 대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다음날에는 항상 대답을 준비해 왔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자 학교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였고 다른 교회에 속한 가족들은 계속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하여 복음에 대해 배웠으며 결국 침례를 받았다.

얼마 후 감독님이 나를 감독실로 불러서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준비하라고 하셨다. 나는 무척 수줍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해서 머뭇거리며 답변을 피했다.

또 한 학기가 끝나서 나는 다시 리오 블랑코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으므로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교회가 정말 참되다면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일이 끝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와 친척들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 명은 교회에 가입하고 싶어했다. 나는 존 에프 오도날 선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리오 블랑코에 침례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여덟 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척 기뻐하였으며 리오 블랑코로 와서 침례 일자리를 정하였다.

오도날 선교부장 역시 우리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내게 선교 사업을 나가라고 하였다. 나는 대답을 미루

기 위해 리오 블랑코에는 신권 지도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오도날 선교부장이 누군가를 보내 준다면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두 명의 선교사를 리오 블랑코로 보내 주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선교사 추천서를 작성했다.

선교 사업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많은 노력과 인내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봉사하기로 한 그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현재 어머니와 14명의 형제 자매 중 2명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회 회원이다. 형제 중 4명이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두 명은 현재 준비 중이다. 우리 대부분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있다.

선교 사업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리오 블랑코의 지부장으로 부름받았다. 5년 후인 1986년에 나는 과테말라 성전에서 결혼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지금 우리에게 세 명의 귀여운 자녀들이 있다. 1990년에 우리 지부는 와드가 되었으며 나는 감독으로 부름받았다. 더 책임자라고 생각되는 형제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물에 떠내려가는 소책자를 본 덕분에 나는 아름답고 보람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나는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찾았다. □

성전에 참석함 : 어려움과 축복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사실상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헌납을 경축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역대하 5~7장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전 헌납은 교회 전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성전 헌납은 왜 그러한 기쁨을 주는 일인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길은 성전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 수 있기 때문입니다.”(나를 기억하라: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 1, 78쪽 참조)

성전에 참석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극복함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교회의 지대한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가 성전에 가기 위해서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엘레인 엘 잭 회장은 필리핀의 한 작은 초가집에서 여덟 명의 자녀와 살고 있는 어떤 어머니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다. “모서리의 작은 테이블 위에는 이동식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2년 동안 그 간단한 기계로 남의 옷을 샅바느질해 돈을 벌며 가족이 성전에 가서 함께 인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100쪽)

성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



그림 주디스 매어

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지나치게 바쁜 일과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옆에서 계속 간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나 어린 자녀를 두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아내를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는 비회원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약해지는 신앙이나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매일 노력할 수 있다. 비록 그 기회가 금방 다가오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한층 행복해질 것이다.

• 우리는 매일 어떻게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성전 참여의 축복을 누림

합당한 교회 회원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엔다우먼트, 영원한 결혼 및 인봉 등과 같은 거룩한 성전의

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의식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다. “이러한 사랑스런 성전들의 평화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때때로 그곳에서는 영의 영향력 아래 순수한 지식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성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성전에 가서 주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성도의 벗, 1992년 6월호, 50쪽)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축복을 받는다. 예를 들면, 성전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어느 자매는 생활에 한층 더 질서가 잡혔으며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녀는 십대의 아들에게서 “엄마 아빠가 성전에 가실 때면 한 주일 동안 제 생활이 더욱 좋아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 특별한 기쁨을 맛보았다고 한다.

성전은 우리가 영원한 문제에 역점을 두게 한다. 우리는 종종 성전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사랑하고 봉사하며 경전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보다 큰 능력을 부여받는다.

• 성전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



어린이들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시 테리 워너와 수잔 엘 워너

어린이들은 영적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름다워요. 아마 마음에 근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을 거예요.”(대니, 12세)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돼요.”(사라, 7세)

“그릇된 일을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사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죠.”(블레인, 16세)

“그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대한 하
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 같은 것이에요. 또한 우
리는 그 두 분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지요.”(미
첼, 10세)

“모든 것이 다시 깨끗해진 것 같아요.”(줄리아, 9세)

어린이들은 영적인 느낌을 충만하게 가질 수도 있습
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얼굴에는 기뻐하는 모습이 나
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인용한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느낌이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라는 사실조차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
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복음을 배운 어린이라고 해서
항상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거나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
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닥불을 피워 놓고 가진 간증 모임이 끝
난 후 열다섯 살 난 보니는 친구 테니어에게 영을 느끼
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테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내 마
음속에 충만해지는 느낌 같은 거야. 그러면 행복해지고
갑자기 울고 싶기도 해져.”

그러자 보니는 놀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영인지 몰랐어.”

일반적으로 말해 어린이들이 영적인 느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
니다. 그들이 또한 이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
는 그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주님은 부모에게 어린 자
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들의 필요 사항이나 느낌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그들을 위해 영적인 인
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십니다. 어린 자녀
들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 아주 민감하므로 부모의 영향
력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외국어 교사들에 따르면 어린이는 “집중”
훈련 방법에 의해 언어를 가장 잘 습득하게 된다고 합
니다. 이 집중 훈련에서 어린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
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 스스로 이를 말하도록 요
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도록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창하게 이야기하며 심지어는 새로
운 언어로 사고를 하도록 학습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육에 적절한 집중 훈련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이
곳에서의 영적인 원리들은 일상 생활의 기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
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
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7)

자녀에게 영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일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 가
운데 더러는 자신의 영적인 느낌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
기 때문에 영에 관해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시현 같은 것을

주의를 기울여 선별한 활동을 통해 가족은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화평을 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고대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나, 영적인 일은 가슴이 뜨거워지거나(교리와 성약 9:8 참조) 조용한 확신을 받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느낌 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주님의 말씀을 어떤 느낌으로 들읍시다. 우리가 겸손하고 민감하다면 주님은 대개 느낌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속삭임을 듣고 크게 기뻐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88년, 77쪽) 그러한 느낌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 대한 동정심, 부모님이나 지도자에 대한 순종심, 용서하려는 마음,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를 고치고 싶어하는 소망, 또는 감사하는 마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느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신 선악에 대한 느낌에 귀기울이고 순종하려 할 때 더 한층 발전하게 됩니다.(모로나이서 7:15~17 참조) 벤슨 대관장님은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바로 성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엔사인, 1989년 5월호, 82쪽)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 할 때, 우리는 좀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니파이이서 33:1 참조) 반대로 영이 부족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한다 해도 자녀들은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순종을 강요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저항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섯 살 난 한 소녀가 슈퍼마켓에서 사탕에 손이 닿지 않자 이를 달라고 떼를 쓰던 중에 선반에 있는 통조림들을 떨어뜨리는 소동을 피웠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좀더 부드럽게 자녀를 타이르는 대신에 어린 딸의 어깨를 꼭 잡고는 화난 목소리로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딸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앉을 거예요. 하지만 안에서는 서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가르치며 “영[이]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질]”(교리와 성약 42:14) 때, 자녀들이 영감을 느끼고 추구하며 그 인도를 받도록 목표를 정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줌. 부모는 자녀가 아주 어려서부터 아침과 밤에 함께 무릎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일에 반복해 동참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기도를 함으로써 존경심, 사랑, 안전 및 평안을 다시 갖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도 있으나 가족 기도 역시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가족 기도의 경건함과 화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린 자녀들이 파괴적인 태도를 보여 부모가 참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참여한 모든 가족의 마음이 온화하게 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은 손위의 저희 자녀 하나가 여동생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듣고 있으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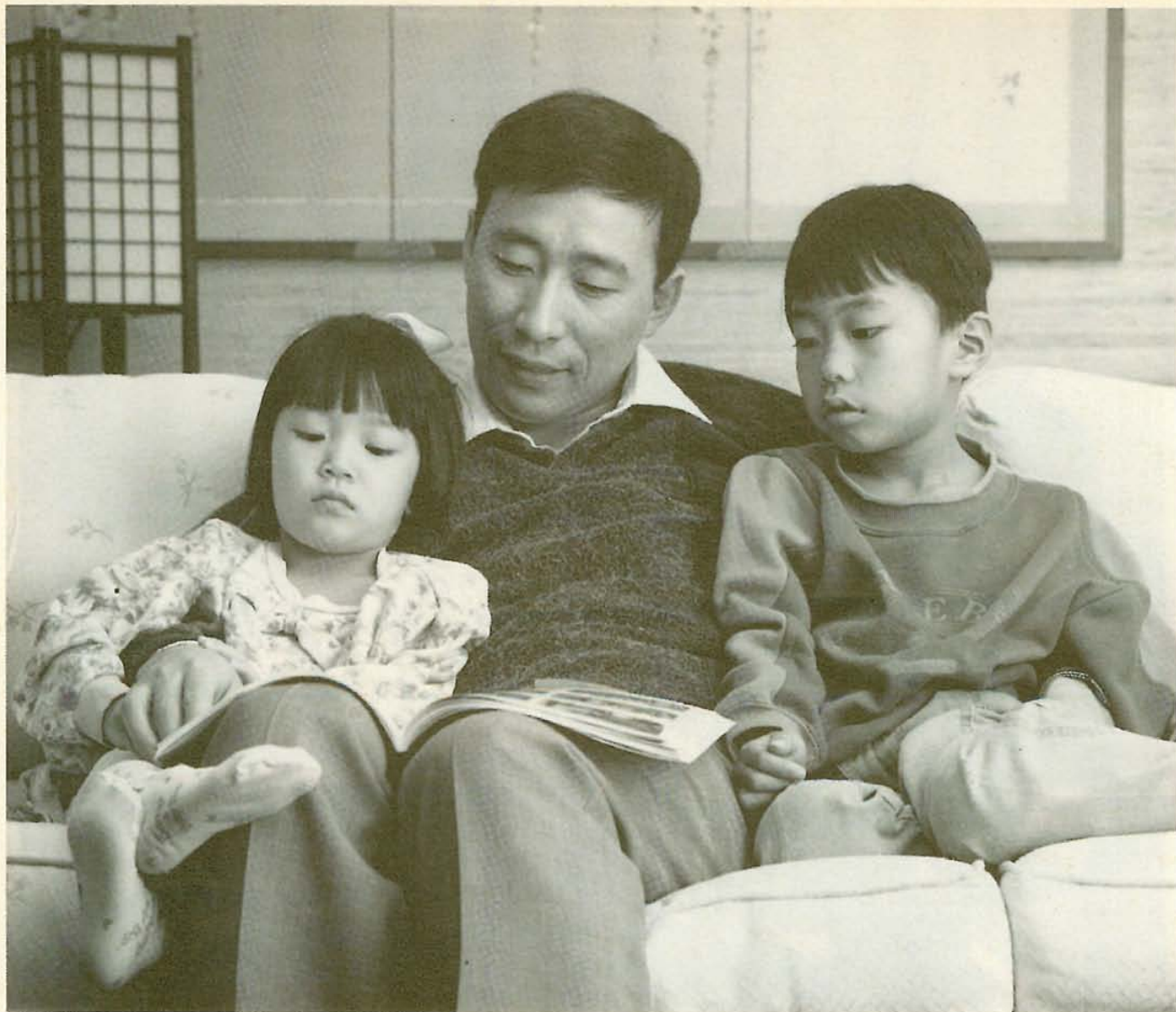
아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한창 말썽이 심한 세 살짜리 아들이 가족 기도를 하는 중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면 아주 조용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2. **평화를 유지함.**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항상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은 “작고 조용한 소리로”(니파이 일서 17:45) 이야기하기 때문에 흥분한 중에 특별히 논쟁하면서 영적인 느낌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부모들은 자신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신앙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가정이 화평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부드럽고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하며, 기꺼이 사과하고 용서해 주고, 활기차게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가정은 반복하여 보다 나은 언행을 실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의 영을 거슬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음악 및 책 등, 세속적인 것들을 없애 버린다면 좀더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녀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가르침.** 간명하게 가르쳐 준 왕국에 관한 교리는 영이 이를 확실히 증거할 때 자녀에게 영속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질문하면서 배우는 복음의 구도자와 같습니다. 가정의 밤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이 주제와는 동떨어진 듯한 질문과 이야기를 할지라도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자녀의 관심 사항을 다루는 데 소요된 시간 때문에 계획한 대로 공과를 끝낼 수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와줄 때 자녀들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4. **건전한 가족 활동으로 자녀를 인도함.** 주의를 기



을여 선별한 활동을 통해 가족은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화평을 얻고 서로를 사랑으로써 지지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느낌이라 할 영원한 가족에의 소속감은 자녀들에게 기타 다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훌륭한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청소년들이 가족과 영적인 유대를 갖고 있다면 범죄 및 기타의 음성적 집단에 거의 호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딸은 가장 소중한 어린 시절 기억은 “가족이 같이 지내면서 누구도 화내지 않고 둘러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노래하면서 영을 느끼던 때”였으며, “정말 행복”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5.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와 대화함.* 저희에게는 자녀들과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시 자녀들은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

를 경청했고, 자녀가 그날의 기뻐던 일과 속상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질문을 했습니다. 느낌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자녀가 어떻게 영에 주의를 기울였거나 기울이지 않았던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데 여지껏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녀와 영적인 느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즉 정원에서 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심부름을 가면서 낼 수 있습니다.

6. *영감에 귀기울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자녀들이 영의 영향력을 기꺼이 받아들일도록 돕기 위해, 즉 자녀들이 감사하게 되고 축복을 헤아리며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이 친절하게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의 구도자와 같습니다. 자녀의 관심 사항을 다루는 데 소요된 시간 때문에 계획대로 가정의 밤 공과를 끝낼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학교 축제를 마친 그녀의 나이 어린 두 아들 리차드와 조는 각각 나무 비행기를 상으로 받아서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맏아들 샘은 두 대의 비행기를 상으로 받아 자못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침대로 올라가던 중에 리차드가 본의 아니게 비행기에 주저앉아 이를 산산 조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샘에게 비행기 한 대를 동생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샘에게 침례 후에 받았던 성신의 은사에 대해 친절하게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리차드는 샘이 준 선물에 감사해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샘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리차에게 비행기를 주면서 난 가슴 속에 어떤 미소와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너무도 따뜻해서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다. 그 벅찬 느낌 때문에 밤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샘은 어머니에게 성신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영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를 나무라거나 무시하거나 힐난하는 등, 혹독한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영을 구하고 그 영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불순종과 언쟁 혹은 반항심에 대처함으

로써, 우리는 영을 통한 치유를 받아 가족에게 영이 가져다 주는 화평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들과 딸을 억지로 천국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훌륭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억지로 훌륭하게 만들려고 거친 방법으로 대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사랑과 친절과 설득과 이성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을 고쳐 줄 수 있습니다.”(복음 교리, 286쪽)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면서, 그들의 불평이나 불만을 잘 들어주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든 그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도 됩니다. 나아가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들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를 가르치는 성스러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 오나니”(찬송가, 18장), 자녀들의 영적인 민감함을 고양시켜주는 데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5:57~58 참조) 우리가 치르는 희생과 흘리는 눈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려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지치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

씨뿌리는 날

빛자말코요를 살리나스 브이

어느 일요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유니온 스테이크 산하 콘스티투치온 와드의 형제들이 신권회에 모였다. 장로들은 유능한 교사인 정원회 회장의 공과를 듣고 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새로 성임 받은 장로와 한동안 비활동이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그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그날의 공과는 장로 정원회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회장은 “신권 정원회란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반원들이 몇 가지 대답을 했다. 그것은 하나의 가족과 같은 것이며, 정원회 소속 형제들은 진정으로 서로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와드 감독인 나는 공과가 끝날 무렵에 맞추어 그 모임에 들어갔다. 나는 손을 들어 말씀을 해도 괜찮은지 허락을 구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정원회 일원인 노리에가 형제님이 농작물을 심는 데 필요한 농기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이미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당장 씨를 뿌려야 합니다. 노리에가 형제님은 연로하시고 그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므로 작물을 심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음날 모두 노리에가 형제를 도와 씨를 뿌리러 가자고 제안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필요한 농기구가 없더라도 협력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모두들 그날의

공과를 실천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흐뭇해 했고, 정원회 회장은 필요한 준비를 했다.

다음날 노리에가 형제님이 연장과 씨앗을 갖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장로 정원회 회원들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몇몇 형제가 땅을 고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흙을 파 씨앗을 심고 이를 다시 흙으로 덮어 주었다. 그 가운데 가장 열심히 동참한 사람은 최근에 재활동화된 회원과 그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일을 끝마쳤을 때는 날이 저문 뒤였다. 우리는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데다 몹시 지쳐 있었으며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옷은 가시 투성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형제 가운데 한 명에게 봉사했다는 사실에 큰 희열을 느꼈고, 신권회에서 배운 공과의 의미를 이미 숙지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노리에가 형제님은 감사를 표했고, 정원회 형제들과 나란히 일을 하면서 다시 원기왕성해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최근에 다시 활동 회원이 된 형제님 역시 함께 참여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떠날 무렵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우리 모두는 흠뻑 젖었다. 하지만 그 소나기가 하나의 축복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늘이 주시는 비는 씨뿌리는 하루를 완전히 마감하는 데 필요한 단비였던 것이다. □



FREED
ANDERSON
1940

빛을 기억함

이탈리아 청년 야영의
지속적인 영향력



“식사를 알리는 호각 소리가 짧게 세 번 울렸다. 청년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식사를 잠시 미루고 간증과 우정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 쏘프와 캐더린 쏘프

멀 리 산 숲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파른 바위 위를 올라다 보니, 세 명의 이탈리아 소녀가 서로 팔을 낀 채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고 있다. 그 노래는 말일성도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난 신앙으로 걸어요”이다. 이리스 카르티아, 안나 리사 브란도니시오 및 스테파나 페트라짜노는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내 어떤 이야기를 영어, 이탈리아어, 불어로 손 놀림을 많이 해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스테파나가 춤을 추고 까르르 웃기도 하며 이탈리아의 대중 가요를 한 곡 부른다. 잠시 후 소녀들은 다시 진지해지고 말일성도 찬송가를 몇 곡 부른다. 15세에서 17세까지의 이 소녀들은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환경 출신이지만 서로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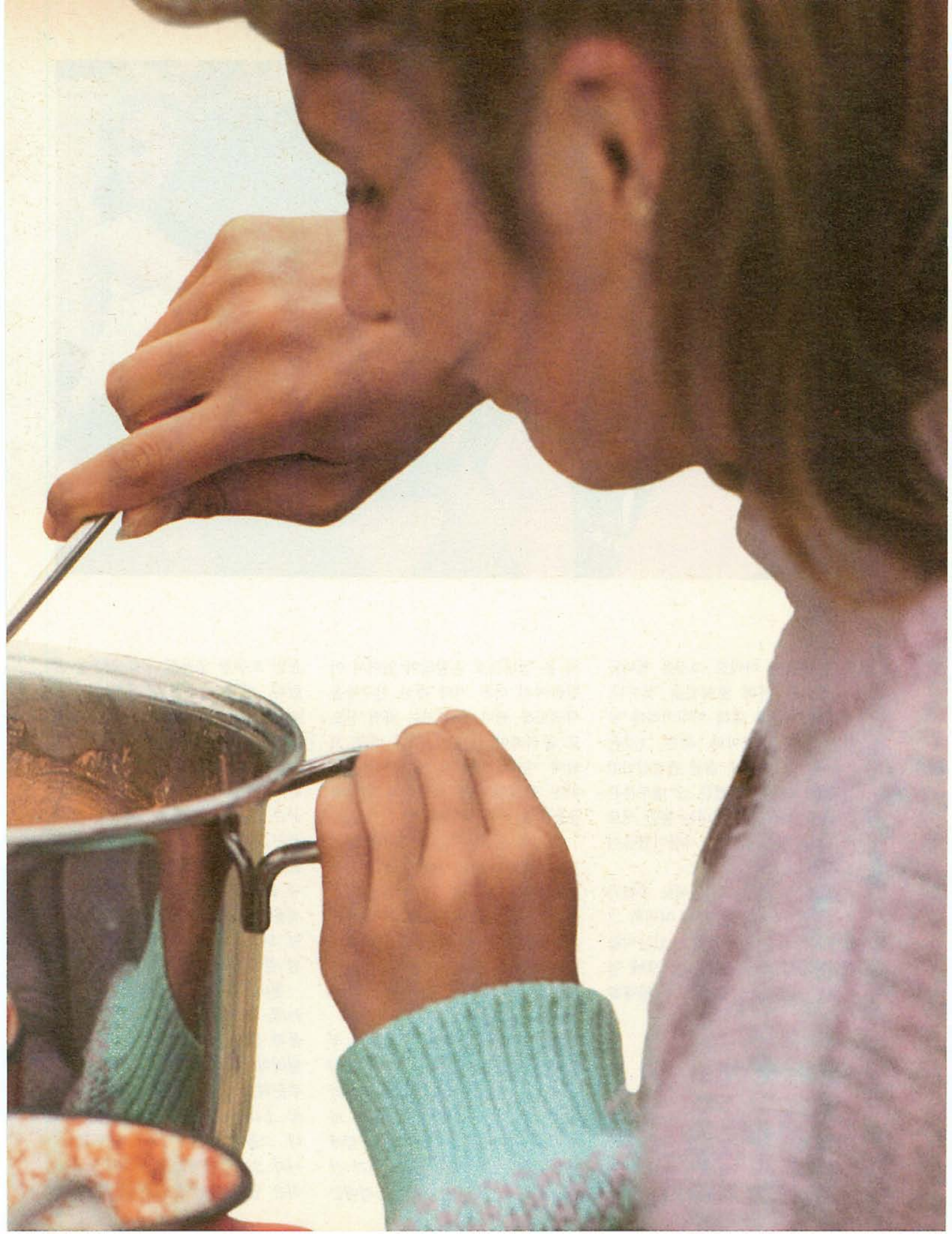
때는 1990년 여름, 이탈리아의 여러 스테이크가 합동으로 가진 말일성도 청년 야영 모임인 캠프 9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0명이 넘는 소녀들이 로마로부터 약 80킬로미터 떨어진 라퀼라 근처의 바위산에서 일주일 동안 가진 이 야영에 참가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그 곳 와드 청년회가 야영장으로 떠나기 전날, 우리는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에 있었다. 트리에스테 와드의 청년 지도자인 리타 쉬나는 우리에게 그들을 동반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우리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그 계획을 취소하고 야영장으로 가라는 속삭임이 들려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이후로도 우리가 했던 일에 감사드렸다.

야영장에서 만났던 소녀들에게는 우리를 영적으로 감동케 하는 그 무



빛
과
영
혼
의
모
임





엇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청녀들이 발하는 영의 빛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였던 열성일 것이다. 혹은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대부분은 그들이 매일 함께 지내는 동안 서로에 대해 점차 깊어진 사랑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면서도 우리가 목격했던 그 특별한 영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햇불 90**에 참가했던 몇몇 소녀들과 서신 왕래를 해왔다.

시작

야영 그룹은 일곱 개 그룹으로 나뉘어졌는데 각각은 일곱 개의 청녀가치관 중 하나씩을 주제로 삼았다. 각 그룹은 여러 스테이크나 지역에

서 온 청녀들로 혼합되어 있어서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 출신 친구들을 사귀도록 했다. 야영지는 바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로코 디 메쥬 고원에 자리를 잡았고 여기서기에 세워진 텐트에서는 소녀들의 대화와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식사를 알리는 호각 소리가 짧게 세 번 울렸다. 그 세 명의 청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간증과 우정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모두 마친 뒤 식사를 했다. 이 가식없는 청녀들이 노래를 몇 곡 더 부른 다음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야영지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모든 청녀는 모여서 국기 제양식에 참가한 뒤 게임에 들어갔다. 오늘 아침에는 구름이 머리위를 뒤덮었고 산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청녀들은 깃발 앞에 반원 모양으로 모여 섰다. 해가 산등성이로 그 모습을 점차 드러내는

동안 모두들 조용히 개회 찬송을 불렀다. 새와 귀뚜라미 울음 소리가 미풍에 잔잔히 실려 온다. 특별한 아침이다. 왜냐하면 지역 지도자이신 크리스찬 유브라 형제님이 청녀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청녀 프로그램이 미래를 설계하는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마치자 형제님은 나무 막대를 하나 들어 모임이 끝났다는 표시로 그것을 부러뜨렸다. 드디어 게임 시간이 되었다. 바로 이때 무언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청녀들이 여러 그룹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그룹이 다른 그룹과 떨어져서 등장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거나 주둔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 소녀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이었다. 그들은 이탈리아어를 모르고, 그 나라 소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일상 습관에 그다지 친숙하지

“예전에 서로 한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못지 않게 그 청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보여 준 모범으로 인해 저는 매일 밤

물몬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야영장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모든 청년들의 사랑을 느낀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장막이 한동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못했다. 그들은 어색해 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이탈리아 청년들은 미국 소녀들에게 다가가 지난해 플로렌스에서 있었던 교회 주최의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그룹에 속한 한 청년이 이탈리아 말을 전혀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온종일 말을 한 마디도 않고 대신 손으로만 의사 표시를 하기로 했었지. 그날이 다가면서 우리는 서로 더욱 가까워진 것을 느꼈단다.” 이윽고 미국과 이탈리아 청년들은 함께 어우러져 대화하며 노래를 불렀다. 우정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것이다.

지속적인 영향력

미국 소녀들을 맡고 있는 청년 지도자 린다 블랙은 아직도 이탈리아 베로나에 살고 있다. 그녀는 몇몇 미국 청년이 이탈리아 소녀들과 가까운 친구가 되어 계속 서신 왕래를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 왔다.

베니스 출신의 안나리사 브란도니시오는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저는 언어와 관습은 달랐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의 강한 권세로 미국 청년들과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야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때로 밤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보낸 그 특별한 일주일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감흥과 느낌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불 90을 통해 저는 올바른 친구들을 사귀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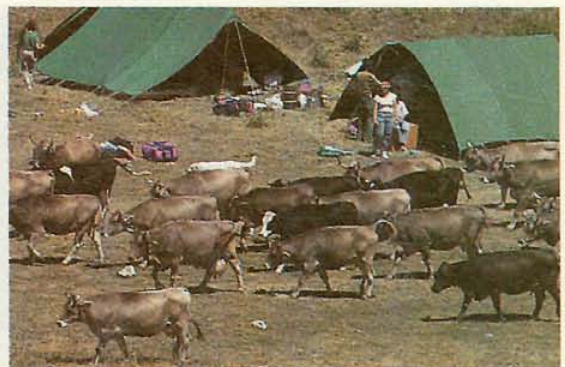
안나리사는 현재 열아홉 살이다. 그녀는 이탈리아 베니스 스테이크의 모데나 와드에서 스테이크 선교사와 방문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이며 합당한 나이가 되면 복음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다.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부 제노아 제3지부의 회원인 소니아 플레스코비치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햇불 90은 일생 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다른 지역에서 모였지만 우리의 이상과 생각과 믿음은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서로 한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못지 않게 그 청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보여 준 모범으로 인해 저는 매일 밤 물몬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야영장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모든 청년들의 사랑을 느낀 저는 과거 어

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장막이 한동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현재 20세인 소니아는 지부 상호 부조회 회장단의 제1보좌, 방문 교사, 지부 합창단 지휘자 겸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 그녀는 올해 안에 복음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다. 최근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햇불 90에서 만났던 몇몇 청년을 최근 있었던 독신 성인 대회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는 야영장에서 보낸 그 놀라운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 아직도 햇불 90에서 만났던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스테이크 산하 비메르카테 지부 출신인 이리스 카르티아는 야영장에서 만났던 청년들에 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회가 아직까지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으며 와드나 지부 내의 회원들도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종종



“마지막 간증 모임에서 청년들과 지도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큰 원을 지어 작별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으나 끝에 가서는 모두들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꼈으며, 폐회 기도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영은 청년 야영을 하는 동안 마치 마술과 같이 작용했습니다. 그 영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은 잠시일지 모르지만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믿음과 느낌을 함께 하는 소녀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는 특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들로부터 세상에 속하되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고 주변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든, 저는 시간이나 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함께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는 없음을 압니다.”

야영이 끝난 직후, 이리스는 우리에게 이런 글을 보내 왔다. “이번 경험은 제가 선교 사업을 하고 언젠가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인생을 계획하는 일과 같은 중대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인생 목표는 이리스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항들이다. 그녀는 올해 19세로 지부의 반주자, 상호부조회 합창단 지휘자 및 방문 교사로 봉사 중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단기 선

교사로 봉사한 바 있고 그녀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만난 73세의 할머니와 계속 서신 왕래를 하고 있다. 그녀는 복음 선교사로 나갈 계획이다.

이리스는 삶에 끼친 야영의 영향력을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한다. “햇살 90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이상과 모범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야영에서 지도자들이 보여 주신 모범은 개인적으로 지도력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푸글리아 지방부 산파포기아 지부 출신의 스테파나 페르라짜노는 야영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다. “현대의 편의 시설도 없이 산에서 지내면서 안락한 여건에 감사함 없이 지냈던 과거에 대해 깨달았고, 주님께서 제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을 통해 저는 저의 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복음이 삶의 안내자임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현재 20세인 스테파나는 21세가 되면 복음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언니는 현재 밀라노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스테파나는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지부 도서 책임자 및 지부 보조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세에서 18세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의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하고 있다. “3년이 지났어도 햇살 90에서 얻은 간증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최상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청년들이 불이 없는 “캠핑파이어원” 주변에 모였다. 이곳의 산에서 대규모 옥의 캠핑파이어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변에선 재미있는 대화가 오갔고 청년들은 어떤 점을 강조할 때는 이리저리 손짓을 하곤 했다. 그때마다 청년들은 미소를 짓거나 까르르 웃기도 했고 간혹 공감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때까지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청년들은 이탈리아 베니스 스테이크의 청년 지도자이자 야영 지도자인 아텔르 펠로니 자매가 말씀을 하기 위해 일어서자 산들바람 소리조차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졌다. “청





녀의 표준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라고 그녀는 말씀했다.

야영의 주제인 “최상으로부터, 위를 향하여”와 야영의 주제가인 “난 신앙으로 걸어요”는 전세계 청녀 프로그램의 이상을 담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해 청녀들은 익히 들어 본 바 있지만, 어쨌든 산이 아주 가까이 있고 새 친구들이 곁에 있는 분위기에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 서로에 대한 더욱 심오한 사랑과 영에 가까워지려는 보다 큰 소망을 가꾸게 하는 활력소를 찾을 수 있었다.

우뚝 솟은 산 뒤로 해가 지면서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청녀들은 텐트 안에서 바람을 맞으며 텐트를 치던 일, 나무 막대와 밧줄을 이용해 테이블을 만들던 일, 현대식 설비 없이 취사를 하던 일 등, 야영을 하는 동안 겪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웠다. 그들은 게임과

서로에게 적용했던 묘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는 듯 웃기도 했다. 곧 밤이 되자 청녀들은 좀더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느낌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때로 이러한 생각은 복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는 마지막 밤 전에 야영지를 떠나야 했기에 베니스 스테이크의 지도자인 티찌아나 로사도 형제가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이렇게 글로 보내 주었다. “마지막 간증 모임에서 청녀들과 지도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큰 원을 지어 작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으나 끝에 가서는 모두들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꼈으며 폐회 기도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말일성도 청녀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야영에 참가했었다. 지금은 그 일이 우리의 삶 역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청녀들이 단순한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면서 느낀 기쁨과 우리와 그들 서로에게 보여 준 사랑과 존경심은 우리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여전히 그 청녀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고, 그들은 종종 야영과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받은 특별한 느낌 및 햇불 90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상기시켜 준다. 한 청녀는 야영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느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주님의 영은 청녀 야영을 하는 동안 마치 마술과 같이 작용했습니다. 그 영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은 잠시일지 모르나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



나의 덩굴 장미

익명

잘 손질해 놓은 정원의 꽃들 가운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덩굴 장미가 자라고 있다. 거친 잔가지들은 쓸모가 없다. 스스로를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어 잔디밭을 가로질러 뺏어 나갈 정도이다. 아버지와 남편은 내게 덩굴 장미를 뽑아 버리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참이다. 그것은 내 아들 존이 어머니날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난 아들이 내게 그것을 주었던 날을 기억한다. 처음에 나는 존이 그날이 어머니날임을 잊고 있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한 마디 말도 없이 아침 일찍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아들이 어디에 갔는지 궁금했다. 휴일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은 그 애 답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교회 모임과 가족이 내게 안겨 준 멋진 선물들과 정성껏 마련한 저녁 식사에 만족했다.

마침내 그날 밤 늦게 존이 아름답게 피어난 작은 덩굴 장미 화분을 갖고 귀가했다. 그는 어머니날 선물로 덩굴 장미를 사서 나와 함께 교회에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대하고 사려깊은 계획들이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뭔가 차질이 생겨 버린 것이다. 아주 훌륭한 덩굴 장미를 찾으려다 그만 그는 자동차 열쇠를 분실해 꼼짝 못하게 되었다. 아들이 준 짧은 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런 설명을 들었다. 아들은 다음주에 꼭 나와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존의 열의에 찬 약속은 결코 빈 말이 아니었으며, 존은 이를 반드시 지키려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장애거리가 등장했다.

* 이름과 장소는 바꿨음.

나는 일년이 넘게 그 작은 덩굴 장미 화분을 정성껏 돌봤다. 나는 덩굴 장미를 기르는 데 준수해야 할 세부 유의 사항에 따라 겨울 동안은 화분을 차고에 들여다 놓았으며, 애리조나주의 태양이 너무 뜨거운 때면 가리개를 해주었다. 가족 모두와 더불어 나는 존이 내게 준 장미가 잘 자라길 소망하듯 아들도 언젠가 만개하는 삶을 살길 계속 기도드렸다.

우리 가족이 애리조나주에서 고향인 와이오밍주로 다시 이주했을 때 나는 그 장미를 차에 실어 왔다. 존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 했으므로 뒤에 남았다. 우리는 와이오밍주의 집에 아주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존이 준 덩굴 장미를 정원에 심었다.

첫해는 최선을 다해 원예 서적을 읽고 조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지 않았다. 나는 뿌리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었으며 진디를 없앴다. 할 수 있는 일은 다해 보았다. 장미는 살아 있었지만 잘 크지 않았다. 장미를 돌볼 때마다 나는 언제나 애리조나주에 있는 존 생각이 나서 그를 위해 기도드렸다. 그는 이따금씩 전화를 걸어왔으며, 그때마다 패기에 찬 목소리로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걱정이 됐다. 덩굴 장미에 온 정성을 다 쏟으면서 내년에는 좀더 자라나길 소망했다.

가을이 되자 나는 덩굴 장미의 가지를 잘라 주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뿌리 주변을 거름으로 덮었다. 그 해 겨울은 40년 만에 최고 혹한을 기록했다. 나는 그 소중한 장미가 잘 살아남길 손꼽아 기다렸다. 바람에 필릭이는 코트 깃을 세우고 눈발에 무릎을 꿇고서는 헐벗은 덩굴 장미 가지들을 바라보았다. 더러운 눈밑에서 살아 있다는 징표라도 있는 건가? 확신이 안갔다.

그 해 겨울 나는 존의 생활이 본인의 소망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동풍이 불어 유리창이 덜덜거리는 가운데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나는 존이 교회에는 나가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아직까지도 마약을 손대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었다. 전화로는 한번도 말한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존이 자기 힘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난제들과 씨름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듯이 들렸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며 언제라도 집에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 주었다. 또 나는 병원 치료비를 낼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해줬다.

마침내 봄이 오면서 다른 덩굴 장미들은 작고 빨간 잎을 내기 시작했으나 그 특별한 덩굴 장미만은 헐벗은 채 생명력이 없어 보였다. 손으로 물을 주고 덮고 있던 낙엽들을 쓸어내 버렸다. 어떻게든 다시 소생시키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원예 전문가이신 아버지는 이 덩굴 장미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죽었다고 단언하셨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마디 투성이의 갈색 그루터기를 눌러 보신 뒤 이제는 포기하고 대신에 다른 덩굴을 심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 해 봄 나는 존을 위해 금식 기도하는 횟수를 늘렸다. 성전에 좀더 자주 가고 언제나 그의 이름을 기도 명부에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전화를 받았다. 존이 집에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다시 가족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돼 나는 장미를 돌보는 중에 그 특별한 덩굴 장미 밑 깊은 곳에서 땅을 헤치며 나오고 있는 푸르고 어린 가지 하나를 발견했다. 좋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너무 기분

이 좋아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기적과 같은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요청했다.

“아마 쓸모없는 것일 게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친은 이야기하셨다. 부친은 침착하게 지팡이로 거름에 덮여 있는 가지를 쭉서 보셨다. “그건 접가지 밑에서 자라나온 잡가지란다. 따라서 장미가 피어나진 않을 거다. 뽑아내고 새 덩굴 장미를 심는 게 나를 듯 하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 장미는 겨울을 견뎌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덩굴 장미를 돌보고 있다. 나는 이른 아침 정원에서 일할 때가 종종 있다.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장미를 돌보면서 존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다가오는 마음의 평정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 존이 집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존을 위한 가족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가 돌아와서 아주 행복하다. 우리 가족은 지금도 존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엄마로서 그에게 아직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나의 남편과 아버지는 존이 아직 어리므로 결국은 성장해 삶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켜 준다. 나는 그 아침의 내면의 기쁨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오래지 않아 한낮의 열기와 좌절과 시련이 그 기쁨을 방해할지는 몰라도 아직은 그렇지 않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분홍빛 하늘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른 아침의 시간들이 이렇듯 의미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왜 이를 싫어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13세 때 여름을 아이다호주 프레스톤의 할머니 댁에서 보냈다. 나는 나무 딸기를 먹고 운하에서 수영을 하고 또 독서를 하고 싶었지만 엄했던 할머니는 장미 손질을 하고 딸기를 따며 바느질을 배우도록 강권하셨다. 할머니께서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소리가 날 때



면 나는 이불 밑에 숨어서 아직도 자고 있는 척하곤 했다. 할머니는 밖에 나와 정원 일을 하라고 날 부르셨다. 하지만 나는 가능한 한 이를 무시해 버렸고 그분의 짙까닥거리는 가지치기용 가위 소리와 바삭거리는 덩굴 장미 소리에 다시 잠을 청해 버렸다.

정원에서 일을 해야 할 때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렇지만 태양이 하늘 이편에서 저편으로 자리 바꿈을 하는 동안 나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 그분은 정원에서는 보통 때와는 달리 엄하거나 까다롭지 않으셨다. 비록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희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주셨다. 할머니의 눈은 감회로 촉촉해졌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께서 인봉을 위해 가족을 성전에 데려가셨던 때가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미소지으셨다.

정원에서 일을 하노라면 할머니 생각이 나고 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셨던가 하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거칠게 너무 자란 덩굴 장미를 자를 때면 전지 가위의 진동으로 손에 경련이 나기도 한다. 자른 가지들을 조심해서 말끔하게 한 곳에 쌓아 둔다. 존의 지하실 방 라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깜짝 놀랄만치 시끄럽게 터져 나오더니 이내 조용해진다. 존이 곧 일어날 모양이다.

전지를 마칠 때 쬐이면 태양이 떠올라 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잘라서 쌓아 놓은 가지 더미는 예상보다 훨씬 높다. 가지달린 큰 가지들을 쓰레기 주머니에 넣다가 손과 발이 굵히고 찢긴다. 굵은 가지 몇 개에 찢려 손에서는 피가 난다. 잔디밭에 무릎꿇고 앉아 있노라면 새소리가 들린다. 나는 어미새들도 새끼가 처음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감흥을 느낄까 궁금하다. 내 마음도 손만큼 아프다. 너무 햇빛이 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직장으로 가는 존의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나는 잠시 숨을 돌린다. 존을 생각하니 눈물이 빗방울처럼 떨어진다. 다시 할머니 생각이 난다. 그분이 가장 훌륭한 덩굴 장미 가지 하나를 오래되고 반쯤 고사한 덩굴 장미에 접붙이시는 것을 바라보던 기억이 난다. 수년 전부터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오래 전 어느 아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 나무를 포기할 수는 없단다. 이건 아주 귀한 것이니 꼭 다시 살려 내도록 해봐야지.”

내가 그 특별한 덩굴 장미 곁에 무릎꿇고 앉아 있는데 태양이 산마루에서 빛 줄기를 한껏 쏟아 붓는다. 아버지의 덩굴 장미 가지 몇 개를 존이 준 꽃피지 않는 장미에 접붙이기 해볼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다시 결실을 맺지 않을까. 아마 아버지의 정원에는 할머니께서 가꾸신 정원에서 가져 온 장미가 좀 있을 것 같다. 눈을 감고 새벽녘 향기가 좋은 장미를 가꾸며 정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할머니를 그려 본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아이다호주의 건조지에서는 장미가 절대 자랄 수 없다고 단언한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할아버지께서 교회 회원이 아니던 그 무렵, 누군가 할아버지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까? 할머니는 그 말을 곧이 들으셨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셨을까?

나는 내가 현실적이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우리가 혹자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를 기적을 간구한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정원에 가서 장미 가지를 좀 잘라 봐야겠다. 나는 내 특별한 덩굴 장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온 마음을 다하여

셋 에이치 보일

나는 교회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운동, 또 여러 가지 취미에 열중하며 자라났습니다.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저는 선교 사업을 열망했습니다. 큰 형은 브라질에서 봉사했었고, 누나는 그때 영국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언제나 해야 할 가장 옳은 일로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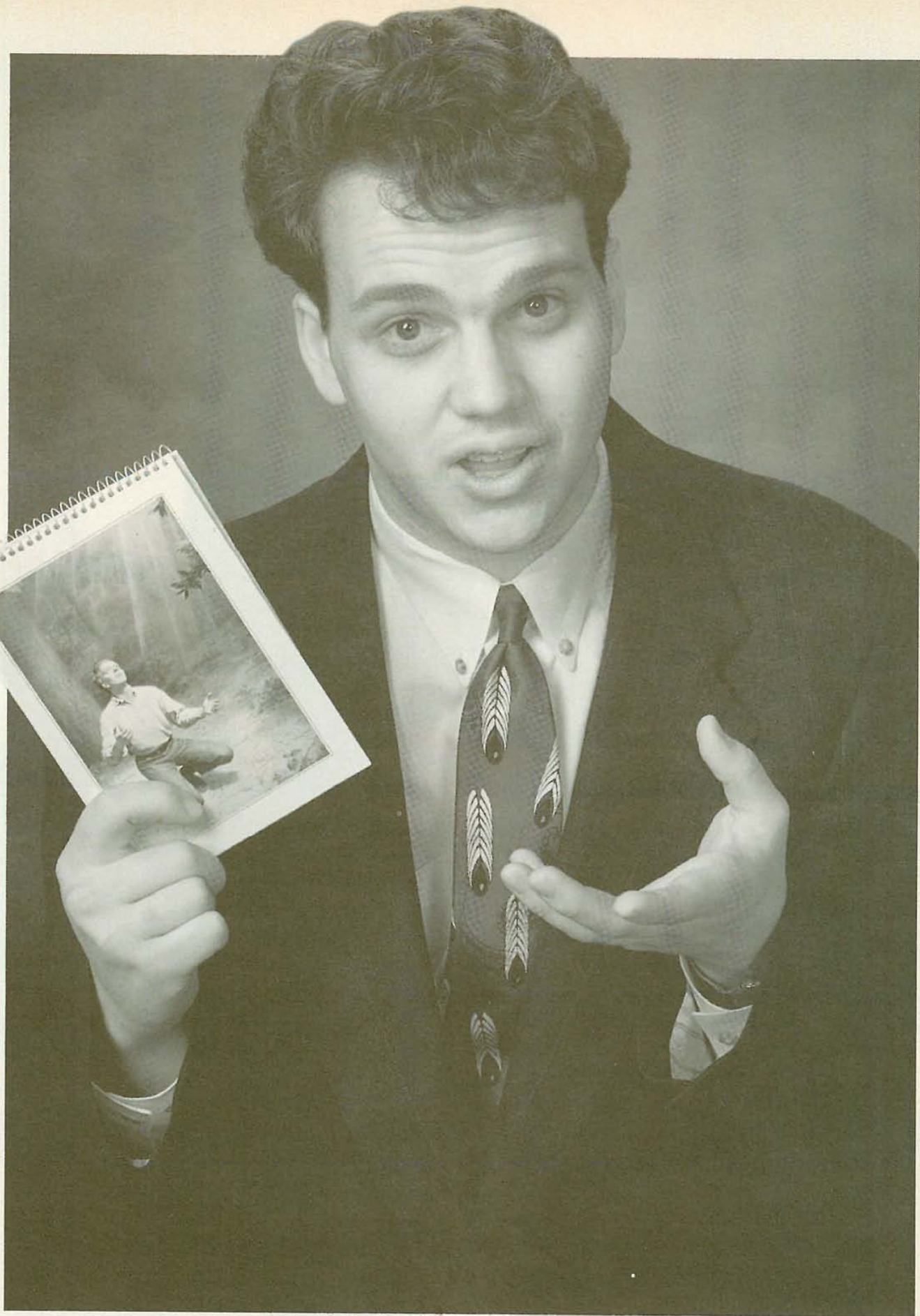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워 오자, 저는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복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특히 요셉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너는 왜 선교 사업을 하려고 하니? 단지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니?”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았고, 결국에는 선교 사업을 하는 이유를 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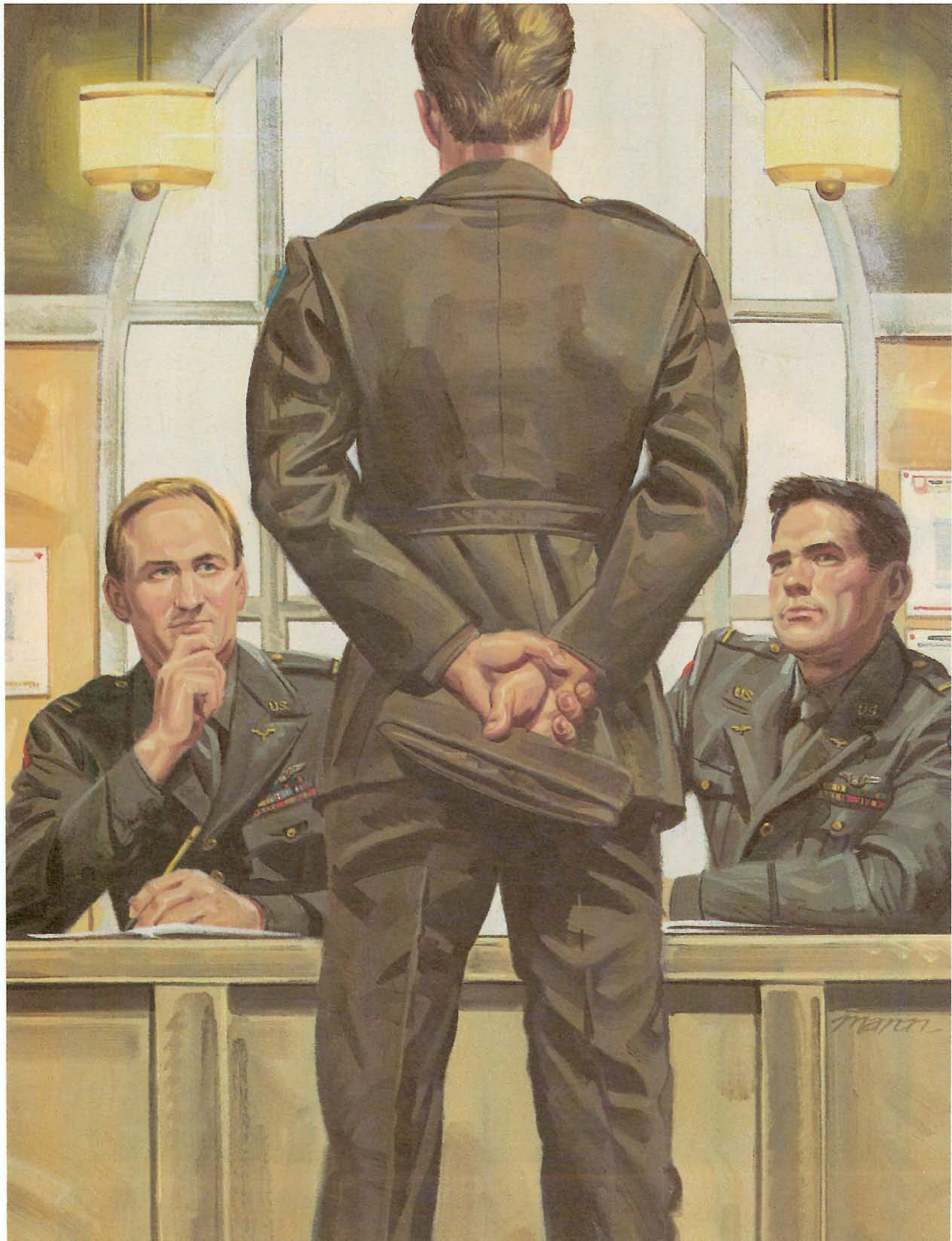
선교사 추천서를 이미 보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한두 시간 정도 복음에 관련된 주제를 놓고 토론하거나 아니면 그냥 경전을 읽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기이한 업적’을 읽어 보도록 권하셨으며 저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책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원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저는 몹시 낙담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이 여전히 필요한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전을 읽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후, 선교사 훈련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요셉 스미스에 관한 첫번째 토론에서 네 번째 원리를 가르치는 역할 담당극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동반자인 브룩뱅크 장로가 예언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끝나쳤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영원토록 브룩뱅크 장로와 그가 요셉 스미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방법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통해 제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간증은 어떤 때보다도 더욱 강하며 매일 저의 간증을 독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 시대를 이끌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간증드립니다. □





일어나서 방어하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성실, 정직,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도 우리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서 대표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지지하고 보호하고, 온전히 그리고 충실하게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내 경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쟁중이었던 1942년, 저는 미국 공군에서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채누트 평원에서의 어느 추운 날 밤에 저는 철야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무 초소를 도는 동안,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괴롭고 긴긴 밤 내내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 무렵, 저는 어떤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으며, 사병의 봉급으로는 아내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야 근무 후 이틀 동안 저는 장교 후보생 학교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정된 날짜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지원자의 자격과 적성을 평가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심사 위원회로 불려 나갔습니다. 자격 조건은 불충분했지만, 저는 2년 동안 대학을 다녔고 남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었습니다. 또 스물두 살에다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격은 이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저는 지원서에 제가 교회의 선교사였다는 것을 적을 수가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장교 심사 위원회가 물어보는 질문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질문들이 저의 선교우십니까? “술을 마십니까?” “당신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하십니까?” “당신은 장교가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제게 던진 장교는 냉담해 보이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 자주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그대로 대답한다면 저 사람은 감정이 상할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답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장교가 되어서 철야 근무와 취사 당번도 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결심한 후, 저는 항상 기도를 드리며 장교는 진정으로 위대한 장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성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장교는 상황이 요구된다면, 기도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행동으로 그의 부하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전쟁시 도덕률이 해이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계급이 높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전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병사들로 하여금 가정이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답을 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제가 배워 왔고, 저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표준에 따라 살아 오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었으며,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함으로써 제 대답을 마쳤습니다. “저는 도덕성에 있어서 표준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더 있었지만 어쨌건

저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에 관한 질문들을 했던 장교들이 저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이고 아주 낮은 점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점수가 게시되었을 때, 저는 제 이름 밑에 쓰여진 95점이라는 성적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장교 후보생 학교에서 상위 그룹으로 인정받았으며, 학교에 들어갈 때는 하사로 진급되었습니다. 저는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되었으며, 물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야말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었으며, 일어나서 제 영혼을 구하고 여러분 모두처럼 주체성을 가져야 했던 많은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제 생애 동안 저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을 때, 항상 제가 원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달랐을 때 그것들은 저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고, 제가 다른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본래의 모습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만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굳세고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위대하고 숨겨진 내부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완전하고 강한 영적인 힘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신성한 사업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주인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이 사업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예언자는 이 지상에 세워진 왕국의 일꾼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



유대인들의 귀환을 위해 팔레스타인의 땅을 헌납하는 올수 하이드, 클리크 켈리 포라이스 작.

십이사도 정우회의 올수 하이드 장로는 성지(팔레스타인)를 헌납했을 때의 경원을 이렇게 기록했다. "(1841년) 10월 24일 일요일 새벽, 달이 밝기 훨씬 전에 지리에서 일어나 성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가 브루크 케드론을 가로질러 감람산으로 올라간 뒤 정적이 흐르는 기운대 영원 무궁하신 주님께 (헌납) 기도를 드렸다." 『교회 역사』 4: 456



바람이 부는 가운데
 텐트를 치고 나무
 막대기와 빗줄을 사용해
 식탁을 만들며 현대식
 기구도 없이 요리를 하던
 일들은 이탈리아에서의
 청녀 야영의 행복한 추억
 거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영향력은
 어떨까?

“빛을 기억함”, 34쪽 참조.

